

기상 용어

가시광선(visible ray)

파장이 0.4~0.7 μm 범위의 전자파 복사로 사람의 눈으로 감지되는 빛을 말한다.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흰색 물체는 광선을 모두 반사하고 흑색 물체는 빛을 모두 흡수하며, 투명한 물체는 빛을 모두 투과시킨다. 태양복사의 약 43%가 가시광선이다. 단색광인 경우 0.65~0.70 μm 는 빨강, 0.59~0.64 μm 는 주황, 0.54~0.58 μm 는 노랑, 0.50~0.53 μm 는 초록, 0.45~0.49 μm 는 파랑, 0.40~0.44 μm 는 보라로 보인다. 태양 광선 아래에서 하얀색의 종이 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일곱 가지 색을 모두 반사하기 때문이고, 파란색의 종이 가 파란 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만을 반사하여 그 색깔만이 눈에 감지되기 때문이다.

간조(low tide)

조석 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를 말하며, 저조(低潮)라고도 한다. 만조 직후부터 조수(潮水)가 빠지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회 발생하지만, 해역에 따라서는 1회밖에 발생하지 않는 곳도 있다. ↔ (반) 만조

강우강도(rain intensity)

비가 내리는 상태의 강도로 단위 시간 동안의 강우량을 말한다. 단위 시간으로는 보통 1분간을 취하나 이것을 1시간당 강우량으로 추산해서 mm/hr로 나타내는 일이 많다. 강우강도를 측정하는 계기를 강우강도계라 한다.

객관예보(objective forecast)

현상의 예측을 위하여 관측자료에 대한 처리·예측·발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예보라 한다. 이러한 예보를 주관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객관예보라 한다. 전통적인 방법인 종관적 예보는 3차원장의 예측으로부터 일기도의 번역까지의 모두를 예보관이 기상학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보자의 주관이 상당히 포함되었다. 이전부터 해 온 객관예보에는 통계적예보가 있다. 이것은 과거 장기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일기를 예측하는 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옛날 예보관이 행하고 있던 일의 중요한 부분이 수치예보로 바뀌었다.

경년변화(secular change)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에 걸쳐 기후요소의 관측값이 변화 또는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해해변화(年年變化)의 값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다 큰 변화(경향)에 비중을 둔다. 영년변화 또는 장기 변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계단형 선도(steped leader)

뇌운과 지면 사이의 전위차가 수~수십억 볼트 이상이 될 때 뇌운 속의 전하가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공기를 뚫고 지면을 향해서 내려온다. 이때 지면까지 전하가 일격에 진행하지 못하고 약 30m씩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계단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계단 모양의 선도를 말한다. Ⓜ